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 51:10)”

**할렐루야~~**

그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계속되는 흥흥한 소문들과 어려운 환경 중에도 멕시코 선교사역과 저희 가족을 위해 늘 관심과 기도로 동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의 영성을 깨우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티후아나 선교지 소식과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1. 일일 의료사역팀이 벤엘선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펜데믹의 영향으로 거의 2년 5개월, “일일 선교팀”과 “단기 팀”의 방문과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드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며,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스스로의 안전을 염려하는 단계에 있으나, 예배와 사역을 위한 활동들은 모두 정상화되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55명의 일일 의료사역팀을 통해 250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질병 검사, 처방 및 치료를 받았고, 선교팀이 준비한 사랑의 나눔 봉투는, 참석한 100가정에 전달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을 준비해 주신 벤엘교회와 한 걸음에 선교지로 달려오셔서 주님의 미소와 사랑의 손길이 되어 섬겨 주신 선교팀에 감사드립니다.

**2. 멕시코 선한목자 국제신학교 소식.**



올해 2월부터 야간반, 토요일반, 수요일 어린이사역자 반의 강의를 대면수업으로 시작했습니다. 모임 때 마다 건강 체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수업을 하며, 일터에서 발생하는 감염 원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출석과 결석을 반복하면서도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물가 인상과 경제적 압박들이 가중되면서 노동시간을 늘리다 보니 5월부터는 학생들의 출석이 반으로 감소하는 날들이 많아지고 휴학을 하는 학생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 7월 2일 전반기 학기 종강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재정들이 회복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장학사역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 3. 티후아나 베엘 선교교회 사역



팬데믹의 위협으로 당뇨와 지병이 있는 성도들의 예배 출석이 느슨했으나, 5월 어린이주일과 어머니 주일을 통해 빈 자리가 다시 채워지고, 서서히 사역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수요 기도회와 목장 모임, 그리고 모든 활동들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 베엘선교교회 목회사역자 루이스 목사님과 아나 사모님의 영성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4. 준비 중인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1) 2022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6월 4일 토요일)

티후아나 시의 70개 교회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모아 2022년도 “여름성경학교 교사강습회”를 베엘선교센터에서 개최합니다. 제한된 공간과 예산으로 인해 교회별로 3명의 리더들을 초청해 오전9시~오후 5시까지 훈련을 하고 비디오와 자료들을 지급하여 교회 스스로 재교육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 팬데믹으로 중단된 어린이 주일예배와 복음전도사역 활성화를 지원하는 유익한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되도록 기도와 동역을 요청 드립니다.

#### 2) 멕시코 종교청에 신청중인 교단 등록 절차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팬데믹 영향으로 모든 등록절차들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교청 서류접수도 예비심사 단계를 거친 후에 최종승인을 받고 원본 서류를 보내도록 과정도 어려워졌습니다. 저희도 약 3개월 동안 예비 서류심사를 거친 후 5월 20일 드디어 원본서류를 발송했습니다.

✦ 서류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종교청에 새로운 교단 등록이 마무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 3) “멕시코 선한목자국제신학교”가 건축을 시작합니다.

신학교 사역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2년전 토지를 구입하도록 인도해 주셨고, 건축을 위해 기도하시던 전병국 목사님과 오레곤 셀렘한인교회를 통해 1층 강의실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뒤숭숭하고 건축자재 비용이 나날이 상승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길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 모든 서류수속과 건축 허가서가 6월중에 원만히 발급 되도록, 그리고 필요한 재정에 축복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 집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찌로다”(시68:19) 고백한 시편 기자처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멕시코 티후아나 박영완, 정기영 선교사 드림.

Timoteo YW PARK